

[사회]

광주 스쿨존 사고 최다 불명예

광산 월계초교 인근 전국 1위 등 21곳 사고 다발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월계초등학교 인근 도로가 지난해 전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곳으로 조사됐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 반경 200m 이내에서 3건 이상 발생한 지역을 선정해 결과 광주 월계초등학교 등 408개소가 꼽혔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은 광산구 월계초교를 비롯한 ▲북구 문흥동 문흥우체국 인근 ▲북구 말바우 시장 인근 등 21곳, 전남은 ▲화순 부영아파트 2차 인근 ▲순천 청도어린이집·신흥초교 인근 ▲북포 부영아파트 2차 인근 등 26곳이 포함됐다.

광산구 월계초교 인근 도로의 경우 '스쿨존'(School Zone·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06년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다발지역

순위	장소	발생건수	사상자수	원인
1	광주 월계초교 인근	9	10(중상4, 경상5, 부상신고 1)	무단횡단, 주정차차량
2	대구 보성타운 인근	9	9(중상4, 경상5)	불법주차, 횡단보도 신호등 미비
3	광주 문흥우체국 인근	8	8(사망1, 중상1, 경상5, 부상신고1)	무단횡단, 신호위반
4	령택 지산축협 사거리	8	8(중상8)	무단횡단, 불법주정차, 보행동선 단절
9	전남 화순2차 부영APT 인근	8	8(중상2, 경상6)	좁은 보도, 무단횡단
10	김해 한국1차 APT 인근	7	7(중상6, 경상1)	감속시설 미흡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건(사상자 10명)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또 북구 문흥동 문흥우체국 인근 도로도 지난해 8건이나 발생해 사고 다발지역 3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점 상위 30개소에는 광주의 경우 3곳이 포함돼 대구(4곳)에 이어 두 번째, 전남은 5

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사고 빈발 상위 30곳은 대부분 학교 주변이거나 상가·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불법주차 차량·노점상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과속방지턱 등 속도 줄이기 시설이 미비한 곳으로 조사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교생 "여가·스포츠는 남의 일" 광주 학내 활동 참여 3.7% 불과

광주지역 고교생들이 입시위주 공부에만 매달려 여가선용이나 스포츠 활동에는 눈 돌릴 틈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참여 학생도 극히 일부 종목에만 편중돼 여가·스포츠 편식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61개 고교를 대상으로 학내 여가, 스포츠 21개 종목 참여실태를 조사한 결과, 참가자 수가 83개팀 2천 3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당 2개팀이 채 안 되는 것으로, 광주 지역 고등학교생 6만1천 787명의 3.7%에 불과한 수치다.

남학생의 경우 배드민턴이 28개팀(896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구 16개팀(356명) ▲축구 6개팀(128명) ▲태권도 4개팀(121명) ▲골프 2개팀(20명) 등 모두 56개팀 1천521명에 달했다. 반면 여학생은 배드민턴 24개팀(726명)과 소프트볼 1개팀(23명)이 전부다.

남녀 공통참여 종목은 배드민턴 2개팀(49명) 이외에는 전무했다.

종목별 편중 현상도 심해 유도, 정구, 인라인, 검도, 댄스스포츠, 육상, 테니스, 수영, 바둑, 탁구, 배구, 산악, 볼링, 하키, 요가에는 참가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기간 지속되는 동아리 활동 외에

종목	남		여		공통	
	팀수	인원	팀수	인원	팀수	인원
구기	6	128				
농구	16	356				
축구			1	23		
소프트볼						
정구						
인라인	4	121				
태권도						
검도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28	896	24	726	2	49
테니스						
수영	2	20				
바둑						
탁구						
계	56	1,521	25	749	2	49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클럽활동 등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까지 모두 포함한 것인데도 참여율이 3%대에 불과했다"면서 "순수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는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1월 중 교육청 주관으로 스포츠 동아리 대항전을 개최해 학생들이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체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동아리를 스포츠클럽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미술대전 서양화대상 한부철씨

제20회 광주미술대전 서양화 부문에서 '바라보다 깎발'을 출품한 한부철(39·광주 북구 중흥동)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관련기사 12면> 광주미술협회(회장 정광주)는 9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제20회 광주미술대전 심사를 갖고 서양화, 한국화, 판화 등 모두 9개 부문 대상과 최우수상 등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 응모작은 모두 1천135점이었으며 이 가운데 624점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한국화 부문에서는 강일호(37·광산구 신가동)씨가 '노스텔지어'로, 공예부문에서는 '달콤 짭사래한 여행'의 오상문(33·북구 삼각동)씨가 대

상을 받았다. 관화 부문에서는 김보람(26·서구 풍암동)씨가 '형이상학적인 풍경 1'로, 조각에서는 서승원(26)씨가 '데자부'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서예 부문은 박성심(59·북구 일곡동)씨가 '유감'으로, 문인화 부문에서는 박종삼씨가 '맑은 향기'로 대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디자인, 건축 부문은 대상작을 내지 못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3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며 각 부문 대상 수상자는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은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당선작은 이날부터 9월4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선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기습폭우 조심

전통번개를 동반한 호리고 30~100mm의 비가 내리겠다.

광주	호리고 비	25~30℃
대구	호리고 비	25~31℃
부산	호리고 비	25~29℃
서울	호리고 비	25~30℃
인천	호리고 비	25~31℃
대전	호리고 비	25~30℃
충청	호리고 비	25~31℃
경상	호리고 비	25~30℃
전남	호리고 비	25~30℃
전북	호리고 비	25~32℃
제주	호리고 비	25~31℃
충남	호리고 비	24~31℃
충북	호리고 비	24~30℃
강원	호리고 비	25~30℃
울릉도	호리고 비	25~30℃
독도	호리고 비	25~31℃
제주	호리고 비	24~31℃
제주	호리고 비	24~30℃

8월 10일

(음 6월 28일) <전국날씨>

▲해돋이 05:48 ▲해질 19:28 ▲달돋이 02:25 ▲달질 17:50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5/29	24/30	24/31	25/32	25/33	25/33

평화시위 정착 '시민참관단' 구성 차질

3개 단체 참여 거부

광주지방경찰청이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시민참관단' 구성이 처음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전국농민연대 등 집회와 시위의 주최 측이었던 노동자·농민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집회·시위 때마다 불거지는 집회 주최 측의 '불법폭력'과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참관단'을 공모를 통해 발족할 예정이다.

광주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시민사회단체총연합·시민단체협의회·전국농민연대 등이 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에 인

사 추천을 의뢰했다. 그러나 5개 단체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농민연대 등 3곳은 경찰 주도라 아닌 중립적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시민참관단 추천을 거부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경찰의 과잉진압 방지보다는 시위대의 폭력행위 단속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경찰이 주도해 만든 시민참관단이 어떻게 자율적·중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들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8월 말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단체들만의 인사추천을 받아 '시민참관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대, 성희룡 의혹 교수 해임

전남대는 대학원생을 성희룡 한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문화전문대학원 A교수를 해임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대는 A교수의 성희룡 의혹 가운데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 진상조사 소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A교수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부인했지만 직무상

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할 때,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할 때 해당 공무원을 해임토록 돼 있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해임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학원의 한 학생은 지난 3월 말 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A교수가 상습적으로 스킨십과 성적박안을 했고 프로젝트 연구비도 부당 사용했다"는 내용을 폭로했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신나는 '미술교실' 9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사회복지법인 '형제사'에서 열린 '미술교실'에서 어린이들이 강사를 따라 직접 미술을 하고 있다. '미술교실'은 광주시 남구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며, 8월29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위험덩어리 장난감 폭죽 '주의보'

소비자원은 화약을 주원료로 만들어진 장난감용 꽃불류로 인해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장난감용 꽃불류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102건이다. 연도별로는 2004년 26건, 2005년 22건, 2006년 38건, 2007년 7월 현재 16건이다.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KT 파워텔의 안전하고 신속·정확한 최첨단 콜시스템

"CALL" 서비스 알려드립니다

부담없는 후속서비스, CSPS기능까지
최대환율까지 서비스 이용률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KT파워텔 최첨단 콜시스템 이용문의번호
KT파워텔 광주지점 062-526-0130

한일카 - 웨리호로!

한일카 - 웨리호로!

한일카 - 웨리호로

100% 예약율 보장, 제주항공기내식

100% 만족도, 무료인기상품

한일카 - 웨리호로

100% 예약율 보장, 제주항공기내식

100% 만족도, 무료인기상품

제주특별자치도 한일카 - 웨리호로

제주특별자치도 한일카 - 웨리호로

제주특별자치도 한일카 - 웨리호로